

해외출장
보고서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일본 두지역거주 관계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2025.05.26.~05.29.
일본 시오지리시·도쿄

장민영 연구위원

목 차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1. 출장개요	1
2. 출장목적 및 주요 조사내용	1
3. 세부일정	2
II. 일본 두지역거주 관계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3
1.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두지역거주 정책	3
1) 시오지리시 두지역거주 정책 및 특정거주촉진계획 추진현황	3
2) 시오지리시 특정거주거점시설(스나바)	6
3) 시오지리시 특정거주거점시설(세어하우스 en.to)	9
2. 국토교통성 두지역거주 정책 추진현황	11
3. 지방이주 및 관계인구 창출 지원 플랫폼 운영사례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	14
III. 사례조사: 소멸 가능성 도시(도쿄 토시마구 이케부쿠로)	17
IV. 종합 및 시사점	19

I. 출장개요 및 세부일정

1. 출장개요

- 과제명 :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 출장기간 : 2025년 5월 26일(월) ~ 5월 29일(목) / 3박 4일
- 출장지역 : 일본 시오지리시, 도쿄
- 출장자 : 장민영 연구위원

2. 출장목적 및 주요 조사내용

□ 출장목적: 일본 두지역거주 및 관계인구 창출 관련 정책·사업 사례 조사

- 본 과제는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를 지원하는 생활거점을 지역 맞춤형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최근 ‘두지역거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민관협력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인 일본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함
 - 일본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두지역거주 정책 및 관계인구 확대 전략 조사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생활거점 조성·운영 사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현황 파악
 - 체류형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정책 고려사항 확인
 - 지방이주 및 관계인구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폼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전략에 대한 이해
 -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조사내용

- 두지역거주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 추진방향
- 두지역거주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 사업 사례 및 운영 현황
- 광역 단위 이주 상담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플랫폼 운영 사례
- 소멸 가능성 도시의 정책 추진방향 및 성과

□ 방문기관 및 면담 대상

- (시오지리시) 시오지리시 기획과, 시오지리시진흥공사, NPO법인 MEGURU, 합동회사 en.to
- (도쿄) 국토교통성 지방정책과,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

3. 세부일정

일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정	기타
5월 26일 (월)	16:00 17:50	인천	나고야	인천 출발, 나고야 도착	아시아나항공 OZ124
	17:50	나고야		숙소 이동	
5월 27일 (화)	07:00 09:00	나고야	시오 지리	이동	JR
	10:00 12:00	시오지리		시오지리시 기획과 담당자 면담	
	13:30 15:30			시오지리시 특정거주거점시설 관계자 면담 및 사례 현장조사(1)	스나바(시빅 이노베이션 거점, 코워킹)
	15:30 17:30			시오지리시 특정거주거점시설 관계자 면담 및 사례 현장조사(2)	en.to(관계인구·체류형 교류거점)
5월 28일 (수)	08:00 11:00	시오 지리	도쿄	이동	JR
	13:00 15:00	도쿄		국토교통성 지방정책과 담당자 면담	
	16:00 18:00			사례 조사 (소멸 가능성 도시 사례)	도쿄 토시마구 이케부쿠로 일대
5월 29일 (목)	10:30 12:30	도쿄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 관계자 면담	
	19:25 22:15	도쿄	인천	도쿄 출발, 인천 도착	아시아나항공 OZ105

II. 일본 두지역거주 관계기관 방문 및 사례조사

1.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두지역거주 정책

1) 시오지리시 두지역거주 정책 및 특정거주촉진계획 추진현황

- 일 시 : 2025년 5월 27일(화) 10:00 ~ 12:00
- 장 소 : 스나바
- 면담자 : 시오지리시청 기획과 담당자 우에마 타쿠미(上間 匠)
- 내 용 : 두지역거주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 추진방향

□ 시오지리시 및 특정거주촉진계획 개요

- 지역 특성
 - 시오지리시는 나가노현 중부의 내륙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녹지(산림), 농지, 도시화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 기능은 비교적 콤팩트하게 구성됨
 - 프린터 제조 중심의 제조업을 비롯해 와인용 포도 생산 등 농업, 전통공예 산업이 함께 발달
 - 인구는 약 65,000명 규모로 일본 내 지자체 평균 수준이며, 고령화율 또한 전국 평균과 유사
- 시오지리시 특정거주촉진계획(2025.04.~2030.03)
 -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시정촌 단위 계획으로, 기존 '이주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관계인구 확대', '다거점 거주'를 핵심목표 설정하고 있음
 - 지역 정착, 교류, 체류 등 다양한 정주 유형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지역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 전환을 도모

□ 특정거주촉진구역 지정 현황 및 기준

- 구역 현황
 - 도시계획, 역사마치즈쿠리계획 등 기존 계획을 기반으로 전략적 중요도와 활동 기반을 고려해 3개 지구(다이몬, 키타오노, 나라카와)를 우선 지정
 - (다이몬지구) 중심시가지 내 JR역 인접, 다수의 거점시설 밀집
 - (키타오노지구) 중산간 지역, 이주자 중심의 지역자원 재해석 및 그랜드 디자인 수립 등 시도
 - (나라카와지구) 고령화율 50% 이상,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포함, 폐교 리모델링 통한 거점화 추진
- 구역 지정 기준
 - '입지적정화계획'의 거주유도구역과 유사하게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 시오지리시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을 우선 고려
 -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어 지역의 자율성 하에 수립
 - 도시계획 구역 내 중심시가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점진적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설계



다이몬지구 내 시민교류회관(교류시설) 및 윈도우(쇼핑센터) 나라카와지구 내 나라이주쿠(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특정거주거점시설 현황 및 운영구조

- 주요 시설 현황
 - (스나바, SUNABA)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대표 거점시설로 2018년 개관하여 시오지리시진흥공사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닌 지역 내 창업자, 이주자, 시민 간 커뮤니티 형성과 교류거점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원격근무, 비즈니스랩, 카페 등 다양한 기능 복합
 - (엔토, en.to) 민간 출자로 정비된 세어하우스로 민간(합동회사 en.to)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외부인을 연결하는 매개이자 단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공간
 - (core 시오지리) 2023년 개관한 시설로, 지역 내 커뮤니티 및 테크 기반의 업무공간을 제공
- 운영구조
 - 대부분 민간 또는 제3섹터가 운영주체이며, 시(市)는 출자나 시범사업 지원 등 간접적으로 참여
 - 시설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은 계약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
- 기타사항
 - 시오지리시는 2005년 나가와촌과의 합병 이후, 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시민 교류거점(엔파크, 스나바 등)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옴
 - 각 촉진구역은 지역 특성과 커뮤니티 수용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 중에 있으며, 예를 들어, 나라카와는 관광과 커뮤니티 회복을 병행, 키타오노는 자원 발굴과 실험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
 - 시 전체적으로 무분별한 시설 확산을 지양하며, 기능적 집약을 통한 ‘콤팩트 도시 구조’를 지향

□ 관계인구 확대 및 두지역거주 정책

- 정책 방향
 - 단순 인구 증가보다 ‘관계인구’ 중심의 지속적인 유입 구조를 구축하고, ‘정주’가 아닌 ‘활동 기반’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
 - ‘거주 + 참여’, ‘체류 + 관계’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를 유도하고, 시민 및 외부인의 자발적 관계 형성을 정책목표로 설정
 -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제6차 종합계획’에서도 관계성, 교류성, 지역 외부와의 협력을 강조

- 에리어매니지먼트와의 연계

- 시오지리시역 동측 중심시가지(역세권)에 대한 시가지 종합재생기본계획을 수립 중
- 숙박 중심 구역 또는 인재육성 중심 구역 등 기능에 따라 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자율적 마치즈쿠리 운동과 연계한 통합적 계획 추진 예정
- 향후 두지역거주 정책과 에리어매니지먼트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모델로 발전 도모

- 향후 과제

- 현재 공식적인 관계인구 등록제도는 부재하며, '노리시오(시오지리 관계인구 포털)'나 '스나바' 가입자 등을 간접 지표로 활용
- 향후 국토교통성 또는 나가노현에서 관계인구 등록제 및 멤버십 제도 도입을 검토 중

□ 특정거주거점시설 현장조사 사진



나라카와지구 내 BYAKU Narai(숙박시설)

다이몬지구 내 시민교류센터(교류시설)

다이몬지구 내 core 시오지리(교류시설, 세어오피스)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2) 시오지리시 특정거주거점시설(스나바)

- 일 시 : 2025년 5월 27일(화) 13:30 ~ 15:30
- 장 소 : 스나바
- 면담자 : 시오지리시진흥공사(塩尻市振興公社) 사이구사 다이스케(三枝 大祐)
- 내 용 : 지역정착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사례

□ 시설 개요 및 운영방향

- 시설 개요
 - 스나바는 시오지리시 제5차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국비(지역창생거점정비교부금)와 시비를 통해 신축된 대표적 생활거점 시설로, 2018년 개관함
 - 시가 출자한 제3섹터인 '시오지리시진흥공사'가 소유 및 운영주체이며, 개관 초기 2년간은 민간 파트너인 HubTokyo와 공동운영체제를 구성함
 - 특정거주거점시설로 지정된 스나바는 지역 기반의 생활자, 이주자, 관계인구가 함께 활동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복합공간으로, 지역과 외부로 잇는 생활기반 플랫폼으로 기능
- 비전 및 운영철학, 운영목표
 - 스나바는 '가고 싶은 도시를 함께 만든다'를 비전으로, 일시적 방문자를 넘어 '관계인구' 형성을 지향하며, 정주자·이주자·관계인구 간 수평적 관계·교류를 유도하고 있음
 - 지역이 자생적으로 변화하고, 주민 스스로 혁신을 일으키는 '시빅 이노베이션(Civic Innovation)' 실현을 목표로 함
 - 창의적 실험과 도전을 장려하고, 'Give & Get' 문화를 통해 신뢰 기반의 커뮤니티를 형성, 연령·배경·직업에 관계없이 자발적 교류와 참여를 유도, 다양성과 수평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
 - '사람 만들기·사업 만들기·장소 만들기'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 아래,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이노베이터 육성, 지속 가능한 로컬 비즈니스 발굴, 커뮤니티 중심 공간 운영을 추구함

□ 주요 운영 프로그램

- 코워킹 커뮤니티
 - 등록멤버는 약 100명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종(창업자, 프리랜서, 회사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됨
 - 이 중 대다수가 시오지리시, 마츠모토, 이토시, 시모스와쵸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약 40%는 이주자, 두지역거주자 등으로 구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SBB, Small Business Bootcamp)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4개월 간 진행, 디자인 씽킹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지원, 지역 내 거주 및 활동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 우선 선발하여 진행
 - (DIVE 프로그램) 프리시드 단계 창업자를 대상으로 로컬 임팩트 투자를 연계하는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최종 단계에서 투자자 및 관계자 연결을 지원, 나가노현 및 현 외부 창업자들도 참여 가능
 - (고등학생 기업가 육성) 지역 과제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기반 창업교육으로, 문제 발굴·프로토타입

제작·수익 실험 등을 통해 비즈니스 감각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단발성 교육이 아닌 실행형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EPSON 등과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사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신사업 개발과 창의적 사고 훈련 등 지원

- LAB 활동

- 데이터 기반의 지역과제 분석과 실증 실험, 마르쉐, 오픈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제안 창구로 기능
- 시 정책의 KPI 체계와 연동하여 운영되며, 정책 성과 도출에 기여

□ 운영구조 및 협력체계

- (운영주체) 시오지리시진흥공사

- 운영인력은 개별 업무위탁 형태(연간 계획)로 6명의 코어 인력과 7명의 시프트 인력, 1명의 서포트 인력 등 다층적 조직 구조로 운영

- (재정구조) 시 지원금(국가 교부금 포함) 약 60%와 자체 수익으로 구성

- 자체 수익은 멤버십 회비(월 7,500엔), 대관료, 기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재정적 자립성을 일부 확보함

- (지역협력) 시, 상공회의소, 지역 금융기관, 부동산기업, 도서관, NPO법인 MEGURU 등 연계

- 외부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활발하며, 니이가타현 산조시 등 컨설팅 및 협업 사례 등이 있음

□ 운영성과 및 정책 연계

- 운영성과

- 스나바는 특정거주자 유치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창업자와 관계인구의 실질 유입이라는 정책효과를 창출
- 누적 등록멤버는 약 350명, 창업 실적은 40건 이상
- 시의 '특정거주축진계획'에 따라 특정거주거점시설로 지정되어 핵심시설로서 위상 강화

- 2024년 국토교통성 '이주 촉진 실증조사' 참여

- 스나바가 지역 정착 및 유입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터뷰, 워크숍, 필드워크 등을 수행
- 성과 측정은 KPI 기반으로 운영(예: 창업 건수, 멤버 증가율 등)

□ 현장조사 사진



스나바 전경 및 내부 시설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취득자료



3) 시오지리시 특정거주거점시설(세어하우스 en.to)

- 일 시 : 2025년 5월 27일(화) 15:30 ~ 17:30
- 장 소 : en.to
- 면담자 : 합동회사 en.to 요코야마 아키히토(横山 暁), NPO법인 MEGURU 유키 호노베(保延祐希)
- 내 용 : 지역거주 기반 조성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사례

□ 조성 배경 및 시설 개요

- 조성 배경
 - en.to는 시오지리시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커뮤니티형 세어하우스로,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외부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
 -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약 2,800~3,000만 엔의 조성비가 투입되었으며, 보조금 없이 크라우드펀딩 및 민간 출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
 - 2024년 개소 이후, 교류와 체험 중심의 주거모델로 정착되었으며, 단기 체류자와 이주 희망자에게 유연한 진입 경로를 제공
- 시설 개요
 - 총 10개실로 구성되며, 이 중 3개실은 '두지역거주 플랜(월 7박 한정, 월 25,000엔)'으로 운영
 - 해당 플랜은 온라인 예약과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한 이용을 지원하며, 현재 4명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 중이며, 나머지 공간은 장기 체류자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며, 여름방학 등에는 대학생 단기 입주 사례도 있음

□ 운영구조 및 특성

- 운영구조
 - en.to는 요코야마 대표가 이끄는 '합동회사 en.to'가 운영주체이며, NPO법인 MEGURU와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 운영을 지속(두 조직은 인적 연계는 있으나 회계 및 운영체계는 명확히 분리)
 - 초기 공간 조성 단계에서는 지역부흥협력대원이 관리자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MEGURU 소속 신입 직원이 상주하며 입주자 관리 및 지역사회 연결 역할을 수행 중
- 운영특성
 - en.to는 조성 단계부터 3년에 걸친 공간 정비와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거쳐, 물리적 공간 이상의 공동체 기반을 사전에 구축함
 - 커뮤니티 운영 철학은 '제2의 고향 만들기'로 요약되며, 입주자 간 관계 형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공동 식사, 어린이 행사,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유대감을 증진함
 - 숙소 제공에서 나아가 일상적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 수행

□ en.to 사업모델 및 정책적 의의

- en.to는 체험주택과 차별화되는 공동거주 기반의 관계인구 확장형 모델로 운영 중
 - 세어하우스는 다양한 배경의 입주자가 공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

며, 체험주택보다 장기적 관계 형성 기반에 적합

- 정주 이전의 단계에서 지역사회와의 교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셰어하우스 en.to와 체험주택 비교]

항목	셰어하우스(en.to)	체험주택
형태	다인 공동 주거	단독 주거(개인/가족 단위)
목적	커뮤니티 형성 및 지역 교류	이주 전 장기 체험 목적
커뮤니티	입주자 및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 중심	비교적 독립된 생활

□ 정책 연계 및 향후 시사점

• 시오지리시 주거지원 정책

- 시오지리시 내 별도 이주자 주거지원금 제도는 없으며, 일부 지역(예: 기타모토)에서는 정주촉진주택을 통해 저렴한 임대 제공(청년·육아세대를 위한 공간 마련에 행정 협조)
- en.to는 그런 제도와 별개로 민간 차원의 유연한 진입 공간으로 기능 중

• 정책적 파급 및 향후 방향

- en.to의 운영 방식은 일본 내 셰어하우스 모델의 재부상과 함께,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주거 정책 다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기 비용이 높고 절차가 복잡한 일본 임대 시장 구조 속에서, en.to는 진입장벽이 낮고 커뮤니티 기반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단기간 체류자 및 두지역거주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거점으로 기능하며, 호텔과 같은 단절된 숙박시설보다 정주 유도 효과가 큼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셰어하우스를 공공정책의 일부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 현장조사 사진



en.to 전경 및 내부 시설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en.to, <https://entocinfo.wixsite.com/ento/>, core塩尻, <https://core.shiojiri.com/facility/>(우측하단)

2. 국토교통성 두지역거주 정책 추진현황

- 일 시 : 2025년 5월 28일(수) 13:00 ~ 15:00
- 장 소 : 국토교통성(카스미가세키 합동청사 2호관 12층)
- 면담자 : 국토교통성 지방정책과 담당자 사카이 사츠오(酒井 達朗), 마츠자카 우타(松坂 維大)
- 내 용 : 두지역거주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

□ 제도 개요 및 정책목적

- 2024년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두지역거주 제도화
 - 국회 주도 정책으로, 한국, OECD 등 국외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설계
 - 도시계획과 조화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침 없이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
- 두지역거주 정책의 4대 목적
 - 지방의 인구 유지 및 인재 확보(다양한 형태 거주 유도)
 - 도시 경쟁력 강화(가족 돌봄, 자연과의 연결 등 복합 가치 반영)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수용(성소수자 등도 포함한 사회적 다양성 존중)
 - 재해 대응력 강화(제2의 거주지 확보를 통한 피난 및 회복력 강화)

□ 제도 운영 구조 및 지자체 적용 현황

- 제도 운영 구조
 - 기초지자체(시정촌) 주도로 '특정거주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보고하고,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가이드라인만 제공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 부서, 현청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권장하고 있으며, 주민 공청회 등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방향 제시
- 계획수립 현황(2025.05.기준)
 - 광역지자체의 '광역적 지역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은 7개소, 기초지자체의 '특정거주촉진계획'은 6개소에서 수립
 - 특정거주지원법인은 홋카이도 키타미시 1개, 아쓰마정 3개, 야마가타현 신조시 1개, 아유키와촌 1개,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3개 단체가 지정받음

[두지역거주 지자체 계획 수립 현황]

도도부현	계획수립일	시정촌	계획수립일
홋카이도	2025.03.21.	홋카이도 아쓰마정	2025.03.24.
니가타현	2025.05.13.	니가타현 사도시	2025.05.16.
이시카와현	2025.03.28.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2025.03.27.
야마나시현	2025.03.28.	돗토리현 에이후정	2025.03.14.
나가노현	2025.02.10.(03.07. 일부 수정)	고치현 우마지촌	2025.03.31.
돗토리현	2025.03.13.	고치현 오카와촌	2025.03.31.
고치현	2025.03.27.		

• 특정거주중점지구 및 특정거주축진구역

- 특정거주중점지구는 광역지자체(도도부현), 특정거주축진구역은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지정하며, 중점지구 내 축진구역이 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역계의 설정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
- 특정거주축진계획은 국가 승인계획이 아니며, 이 계획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및 인허가 등이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추어 구역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입지적정화계획 상의 거주유도구역과 같이 특정거주축진구역을 마을 단위 집약형 정주모델로 접근하는 경우, 두 구역계 간 정합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할 수 있음
- 두지역거주자는 통근이나 일자리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서부터 관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하므로, 지역에서 어떠한 두지역거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역 설정과 전략 방향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음

□ 등록제도 및 제도 확장 방안

• ‘후루사토 주민등록제도’ 도입 검토

- ‘관계인구’의 시각화 및 제도화를 위한 등록 시스템으로서, 현재 시범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개인이 자신을 ‘관계인구’로 자가 등록하고, 지자체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등록구조를 검토 중
- 등록 가능 지역은 3~5개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의 거주가 어느 정도 비중일 때 이를 두지역거주로 인정할지(예: 10~20%) 판단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 복수 주소제 도입 전 단계로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 제도를 통해 두지역거주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복수 주소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향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주민표(주민등록)는 1개 지역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및 선거권과 관련이 있으나, 고향세(ふるさと納税)는 주민표와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두지역거주 등록제도와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

<p>【 후루사토 주민등록제도 】</p>	<p>2024.11. ‘관계인구의 시각화 및 후루사토 주민등록제’ 제안(新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회의)</p> <p>2024.12. 관계인구 확대·창출을 위해 두지역거주 축진방안 마련 검토(지방창생 2.0, 기본방침)</p> <p>2025.01. 자발적 등록제도와 지역활동 참여 연계를 전제로 제도 검토 본격화</p> <p>2025.02. 관계부처 연계 검토</p> <p>2025.04. 후루사토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 방침 발표(경제재정운영회의)</p>
-------------------------------	---

출처: 국토교통성 내부자료(2025.05.)

• ‘전국 두지역거주축진 관민연계 플랫폼’ 운영을 통한 중장기 과제 논의

- 두지역거주 축진을 위한 현실적 쟁점 및 제약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두지역거주축진 관민연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총무성 등 중앙부처는 협력주체로서 참여
- 플랫폼에서는 ①부담경감위원회, ②등록·지역관련위원회, ③주체·인재위원회, ④교육위원회, ⑤보육위원회의 5가지 전문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예산 및 제도적 정책 제언을 목표로 함
- 예를 들어, 보육/교육 관련 제도는 주민표 기준으로 작동하는 분야로서 두지역거주 가족의 자녀는 교육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세금 배분과 참정권과 관련하여 두지역거

주자는 어떤 지역에 세금을 납부할지, 어디서 선거권을 행사할지가 복수거주 제도에서 가장 큰 제약이 되고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 제도 활용 및 인센티브 구조

• 제도 활용 및 인센티브

- 국가는 특정거주촉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대해 실증사업 우선 배정, 보조금 심사 시 가점 등 제공
- 특정거주촉진계획 자체가 자율적이며 법적 승인 절차는 없지만, 계획 수립 시 실효적 예산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빈집 활용을 위한 업무를 특정거주지원법인에게 위탁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협력이 용이해짐

• 두지역거주 선도적 프로젝트 실행사업

- 두지역거주 촉진을 통해 지방으로 인구유입을 창출·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 빈집,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등 지자체의 다양한 시책을 국가가 지원하며, 그 효과와 영향력을 검증하는 사업
- 2025년 5월 사업 공모를 통해 1차로 26건을 선정하였으며, 2차 공모 중으로 6월 중 추가 선정 예정

• 평가 및 모니터링

- 특정거주촉진계획에 대한 공통된 KPI를 제시하는 것은 없으며, 지자체가 각 지역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예: 경제효과, 창업 수, 커뮤니티 형성 등)
- 국토교통성은 성과 수집 및 비교 연구 등을 담당, 직접적인 모니터링이나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빈집 활용 및 숙박 운영 제도

• 빈집 활용 및 리모델링 관련

-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민박이나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및 내진 기준을 포함한 「건축기준법」을 준수해야 함
- 빈집 활용 및 리모델링 시 국토교통성 주택국의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특정거주촉진계획 수립 지자체의 경우, 예산 심사시 가점을 받을 수 있음(지방정책과와 긴밀 협조)

•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 조성 관련

- 일본에서 민박(주택숙박업)은 연 180일 이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2018)되었으며, 이 기간 초과 시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숙박업은 후생노동성 관할)

□ 취득자료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省

<

3. 지방이주 및 관계인구 창출 지원 플랫폼 운영사례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

- 일 시 : 2025.05.29.(목) 10:30 ~ 12:30
- 장 소 :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 사무실 (東京都千代田区)
- 면담자 :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 이나가키 후미히로(稲垣文彦), 요시토미 료(吉富諒)
- 내 용 : 광역 단위 이주상담 및 관계인구 확대 지원 정책 운영사례

□ 기관 개요 및 운영방식

- 기관 개요 및 설립 배경
 -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는 2002년 설립된 일본 대표 이주지원단체로, ‘단카이 세대(전후 베이비붐)’의 대규모 퇴직을 계기로 ‘귀향·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 당시, 중앙정부 주도의 조사를 통해 귀향·귀촌 생활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후(단카이 세대의 약 40%가 희망), 농협·어협 등과 연계하여 법인을 설립
- 주요사업 및 운영방식
 - 전국 44개 지자체와 연계하여 이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은 온라인, 대면,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이주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응
 - 귀향을 희망하는 자가 많으나 지방이주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아 상담을 통해 이를 구체화·명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에서의 생활에 단점이 있더라도, 이주 목적이 분명할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연례행사로 이주 박람회 ‘후루사토 회귀 페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박람회는 전국 47개 시도 부현이 참여, 28,000명이 방문함
 - 그밖에 이주 희망자 대상으로 지역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지자체 대상 지방 이주 정책 담당자 연수회, 정책 컨설팅, 지방이주 정책 분석 등을 지원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

□ 일본의 이주 트렌드 및 지역정책 인사이트

- 이주자 특성 및 선호
 -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가치관 변화 등으로 다양한 직업과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층이 증가
 - 과거에는 50대 이상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젊은 세대(20~40대), 특히 육아세대와 여성 중심의 ‘丁寧な暮らし(정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계층이 주요 이용자로 나타나면서, 단순 귀농을 위한 지방이주보다 균형 있는 생활과 지역 공헌으로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경향을 보여줌
 - 이주 목적은 주로 일자리, 자연환경, 주거환경 순으로 나타남
 - 도쿄에서 지방도시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군마, 시즈오카, 토치기 등 도쿄 인근의 중소도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생활편의성, 교통접근성, 정주지원체계 여부가 주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커뮤니티 기반의 농산어촌 지역과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별장지(리조트)를 선호하는 유형이 구분되고 있음

- 지역정착 인사이트

- 지역정착은 '단기 체류 → 커뮤니티 참여 → 정착'의 순환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며, 커뮤니티 수용성과 지역에서의 역할에 따라 결정
- 이주를 통해 인구를 '이전'하기보다, '인재 확보'와 '기여 유도'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 중요

-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제도 운영 성과

- 본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어 현재 280개 지자체에서 약 8,000명이 활동 중이며, 20~30대 비율이 60%, 남녀 비율 1:1, 정착률 약 70%로서 제도 운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부흥협력대원이 해당 지역에서 '문제 해결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 '관계형', '공존형'의 접근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대응하였을 때 활동 성과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부흥협력대원은 지역에서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해 교육과 멘토링을 수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에서의 활동 성과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역량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액티브 시니어층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기여형 인재 유치도 확대되고 있음

□ 기타의견

- 지방이주 정책으로의 제언 및 시사점

- 이주정책은 KPI 중심의 양적 성과로 측정하기 보다, 질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함
- 지자체는 단순 인구 유치가 아닌, 지역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유입을 목표로 해야함
- 또한 지자체는 시민을 위해 세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며, 두지역거주자나 이주자를 위해 세금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주자 유입이 단기적 세수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지역 커뮤니티까지 붕괴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주자 중심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

- 최근 일본에서 강조되는 지방이주의 3가지 키워드

- 일과 생활의 균형(예: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더 부여)
- 지역공헌 희망(자신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지역이나 사람과 연결되어 공헌하고 싶다는 욕구 증가)
- 농업 등 생활밀착형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욕구(자신의 관심사와 연결, 자신의 생활을 위해 단순 '돈'을 쓰기보다 '진심'을 들여 직접 만들고 생산하고 싶어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지방이주 요인

- 일본의 사회시스템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 연금 등의 제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논의가 확산하면서, 도시를 떠나 지방이주를 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리먼쇼크, 동일본대지진, 코로나19 등 지속된 외부 위기가 지방이주로의 인식 전환을 촉발하였고, 지역통화·로컬경제에 대한 관심 확대가 지방이주에 영향력을 미침(건강한 지역은 사람과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를 가짐)

□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 상담센터 사진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취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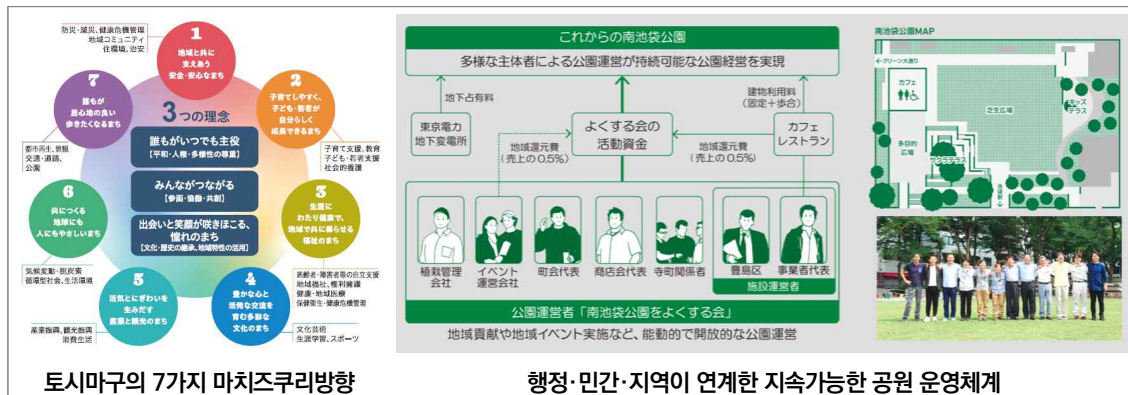
III. 사례조사: 소멸 가능성 도시(도쿄 토시마구 이케부쿠로)

- 일 시 : 2025.05.28.(목) 16:00~18:00
- 주 소 : 도쿄도 토시마구 이케부쿠로 일대
- 특 징 : '소멸 가능성 도시' 극복을 위해 공공공간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 배경 및 추진경과
 - 토시마구는 2014년 일본창성회의가 발표한 인구감소 전망에서, 도쿄 23구 중 유일하게 '소멸 가능성 도시(消滅可能性都市)'로 지정됨
 - 2040년까지 20~39세 여성 인구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결과로, 높은 인구 밀도와 뛰어난 교통접근성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 가족 친화 정주 여건 부족, 저출산 등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여성과 아이에게 친화적인 마치즈쿠리' 추진
 - 토시마구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멸가능성도시 긴급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을 검토, '여성과 아이에게 친화적인 마치즈쿠리'를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참여 기반의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
 - 특히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南池袋公園)'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공원을 도시 내 휴식 공간을 넘어, 재난 시 대피처이자 일상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공원 내 카페 운영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운영구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모델을 정착시킴
 - 또한, 'IKEBUKURO LIVING LOOP' 프로젝트를 통해 공원의 인접 도로·광장을 포함한 일대 공간을 '일상 속 공공리빙룸'으로 재구성하여 도시의 생활 중심축으로 활용
 -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행정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마르쉐, 워크숍,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일상적인 공간 이용과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짐
- 사업특징 및 성과
 - 공공공간 중심의 도시재생과 시민참여형 마치즈쿠리를 통해, 토시마구는 젊은 세대의 정주율 회복과 출산율 증가, 인구 총량 회복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면서, 2024년 소멸가능성도시 지정 10년 만에 지정 해제를 달성함
 - 2025년 현재, 토시마구는 소멸가능성도시 극복을 위한 사람 중심의 마치즈쿠리 방향을 계승·발전시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가지 이념 및 7가지 마치즈쿠리 방향을 제시함
 - * (3가지 이념) 누구나 언제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도시(평화·인권·다양성 존중), 모두가 서로 연결되는 도시, (참여·협력·공동창조), 만남과 웃음이 만개하는, 동경의 도시 (문화·역사의 계승, 지역 특성의 활용)
 - ** (7가지 마치즈쿠리 방향) ①지역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는 안심·안전한 도시, ②활력과 활기를 만들어내는 산업과 관광의 도시, ③아이 키우기 쉽고, 아동과 청년이 자신답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④함께 만드는 지구에도 사람에게도 친화적인 도시, ⑤평생 건강하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지의 도시, ⑥누구나 편안하게 느끼고 걷고 싶은 도시, ⑦풍요로운 마음과 활발한 교류를 키우는 다채로운 문화의 도시

- 단기적 인구 유입이 아닌 공간의 매력 창출과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재구성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거점공간 조성으로의 시사점을 제공



□ 현장조사 사진



미나미이케부쿠로 공원 전경



이케부쿠로 리빙루프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IV. 종합 및 시사점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자율성 확보 중요

- 지자체 자율성 기반의 맞춤형 정책설계 핵심
 - 일본의 두지역거주 제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특정거주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설계를 가능하게 함
 - 생활인구의 대상범위가 굉장히 넓고, 지역별 생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기존의 계획들과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
-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종합적 관점 필요
 - 두지역거주 구역(특정거주촉진구역, 중점지구 등) 설정 시, 도시계획, 주택정책, 인구정책 등 기존 계획과의 연계·조화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중소도시나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내 기능 분산에 따른 공간관리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두지역거주 계획과 입지적정화계획 등 도시공간 관리를 위한 계획 간의 실질적 연계를 권장
 - 이처럼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유입·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역 내 서비스와 인프라 체계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관련 법정계획 간 조정 및 통합적 계획 체계 마련이 중요

□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구성요소 및 운영모델 확보

- 생활거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거점 기능 필요
 - 스나바나 en.to 등의 특정거주거점시설 사례는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과 이주자 간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기반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체류·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이 아니라, 두지역거주자 또는 관계인구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이 중요함
-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필요
 - 일본 사례에서는 공공은 제도적 기반 제공과 촉진자·조정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시설 운영과 커뮤니티 기획을 주도하는 구조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공공-민간 간 책임·역할 분담, 운영 수익모델 구축, 운영주체 발굴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업구조가 필요하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공공공간의 재구성과 커뮤니티 연계가 도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
 - 토시마구의 미나미이케부쿠로공원 사례처럼 시민 참여 기반의 '일상 속 리빙룸' 재구성 전략은 소멸 위기에서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
 - 이는 쇠퇴지역의 공공공간이 단순 이용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가 결합된 '삶의 기반'으로

로 전환될 때, 정주 매력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

□ 다거점 생활자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적 접근 필요

- 다거점 생활자 등록의 제도화를 위한 단계적 실험 및 정책설계 필요
 - 일본의 '후루사토 주민등록제도'는 다거점 생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상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 향후 복수주소제 도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인구 등록, 체류형 생활인구 분류 체계 구축 등 단계적 제도 실험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해, 복수주소제 기반의 인구정책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행정체계 유연화 필요
 - 세금, 교육, 의료, 선거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생활인구 제도의 활성화, 복수주소제 도입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체계의 개선과제를 검토해야 함
 - 한편, 고향세(ふるさと納税)의 경우, 관계인구 제도와 연계성이 높고, 활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중간지원조직 및 플랫폼 역할 강화

- 생활인구·관계인구, 지방이주 희망자 등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
 -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는 전국 지자체 및 민간과 연계하여 이주 희망자와 지역을 매칭하고,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
 -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지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방이주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지역 매칭과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
 -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열악할 수 있는 지방에서의 생활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체류·정착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작용
- 관계인구-정착인구를 연결하는 정책설계 필요
 - 관계인구가 지역과 느슨하게 연결되고, 체류 경험을 통해 순환적으로 방문하거나 장기적으로 정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이 가능한 정책 체계 수립이 중요함
 - 이는 지방도시의 안정적 생활거점 운영과 지역사회 활력 유지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민간 역량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필요

- 민간의 기획력과 자율성이 지속가능성으로 연결
 - 스나바, en.to 등은 지역 내 민간 기획자, 활동가, 사업자의 역량과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음
 - 지역 활동가, 협동조합, 청년 창업자 등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 사업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생활거점 정책은 물리적 공급 중심에서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 전략으로 전환 필요
 - 단일 사업 또는 시설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망, 활동주체, 지역경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자생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작용